1992년 3월 4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2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개의

❍ 발언자:

- 와타나베 이치로(渡部一郎) 의원(공명당 소속 중의원 의원)
-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국무대신(세무사, 정치가, 중의원 의원, 대장성·농림수산성·후생성 장관, 부총리)
-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총리대신(대장성 관료, 정치가,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 경제기획청 장관, 중의원 의원, 통상산업대신, 외무대신, 내각관방장관, 부총리, 대장대신, 내각 총리대신, 우정대신,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자민당 총무회장, 자민당 총재)
- 이토 에이세이(伊藤英成) 의원(민사당 소속 중의원 의원)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261X01119920304&current=45

❍ 해제(개요 및 특징)

와타나베 의원은 **위안부** 문제 등 전후처리 여부에 따라 일본이 품격 있는 노블레스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경계가 될 수 있다면서, 다시금 **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을 촉구함. 이에 대해 와타나베 국무대신과 미야자와 총리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개별적인 보상은 매우 어려워 당장 확답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거듭 되풀이함. 한편 이토 의원은 미국 뉴스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 총리가 사죄했다는 보도를 보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아시아 각국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 주요 내용 번역

▷ **와타나베 위원** “(전략) 그런데 서두에서 나온 것이 전시 **위안부** 문제, 아까 품격 있는 국가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머리에서부터 뭐랄까 흙탕물을 뒤집어쓴 듯한 분위기가 되어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후처리, 넓은 의미의 전후처리를 우리 세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로서 제기되는 인원 수라든가, 사건으로서 사소할지 모르나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점은 일본이 노블레스 국가가 될 수 있는지 경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따라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안건 가운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 일본군 군인·군속·군부(軍夫),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위안부**도 이 안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일본 정부가 고용하거나 징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그 이외의 문제는 분리

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두 문제를 구분하여 우선 당시 일본인으로 일본 측이 사용한, 일본정부가 사용한 자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략)

▷ **와타나베 국무대신** “(전략) 그러나 일단 해결되었다는 국가 간에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은 좀처럼 말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는 반드시 나오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논쟁에서는 마무리되겠지만, 뭐랄까 이례적이랄까요, 그런 것은 하나의 정치문제이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는 무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태를 잘 모르므로, 관방・관저(官邸)의 지도하에 현재 쌍방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중략)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전략) 제가 얼마 전 한국에 가서 유감의 뜻을 표한 것도 그 문제였는데, 단지 제가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말로만 사과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보상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인사로 위선이라고 하니, 그건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보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서는 당시의 국가인지 군인지가 구체적으로 그 모집 혹은 **위안소**의 경영에 함께 관여했다는 대응이 조금씩 당시의 문서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은 성실히 조사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것에 관해 전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사안별로 보상할 것인가 하면, 그것은 비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그런 것을 할 것인가도 정말이지 다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와타나베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신 생각과 심경, 종래의 경위를 알고 계신 만큼, 저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갑작스럽게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와타나베 위원** “솔직히 저는 총리와 외무대신이 지금의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입장으로서 현행의 입장도 그대로일 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연구하여 향후 일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중략)

▷ **이토 위원** “꽤 어려운 일이어서, 얼마 전 저는 NHK에서 미국의 ABC 뉴스의 내

용을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BC 쪽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미국 ABC에서는 2월 20일에 방영했다고 하는데, 일본 정치가는 왜 그토록 사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첫 화면은 지난번 동계올림픽의 이토 미도리(伊藤みどり) 씨가 실패한 뒤에 미안하다고 한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곧바로 그 뒤는 미국 노동자에 대한 총리의 사죄 문제, 혹은 한국에서의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 문제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것일까, 일본인이 얼마나 자주 죄송하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 혹은 특집이 방송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기분입니다만, 여러모로 사죄의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꽤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죄 방식에 대해, 미국 ABC 방송에서도 일본은 왜 이렇게 많이 사죄하는지 언급하며, 총리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 **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오해되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제가 한국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중략)

▷ **이토 위원** “지금 한국의, 예컨대 **위안부**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일본의 외교를 생각할 때, 일본과 아시아 각국의 신뢰 관계가 좀처럼 강고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